



○신원사 중약단은 전체 영역을 구성한 형식은 유교의 사당형식이고, 대문채와 중문채를 구성한 수법은 대가집의 주역형식, 그리고 본전 건물은 불교법당 형식이며, 본전의 지붕은 궁궐건물 같이 장식되어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다.

# 명성황후 구국혼 깃든 산신당

## 신원사 중약단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반도의 선조들은 고유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중요한 산에는 산신이 있고, 그들을 예배하는 산악 숭배 신앙이었다. 신라인들이 따르면, 그들의 국토는 다섯 개의 중요한 산이 있는데, 중앙 부악산(현 팔공산), 남악 지리산, 북악 태백산, 동악 토함산, 그리고 서악 계룡산이었다.

불교가 한반도 전역에 퍼지면서, 고대의 중요한 산악물에는 당연히 명찰들이 건립된다. 그 장소들이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까닭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 신앙을 융합하여 민중적인 종교로 승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계룡산과 같이 이처럼 신성한 산에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가람들이 자리잡게 된다.

계룡산에는 4대 사찰이 있었는데, 동쪽에 동학사, 서쪽에 감사, 남쪽에 신원사,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북쪽에 구룡사가 그것이었다. 고대인들이 그들의 국토를 4방으로 나누어 산악을 신앙했듯이, 계룡산에도 동서남북에 사찰이 세워져 이상적인 불국토를 가꾸어온 것이다. 비단 계룡사 뿐 아니라, 팔공산, 토함산, 오대산, 지리산, 묘향산 등 이름난 산에는 모두 방위개념에 따라 사찰들을 질서있게 세워, 산 자체를 가람들의 거대한 만다라로 재현하려 했던 것이다.

명정구역상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에 위치한 신원사는 감사나 동학사에 비해 덜 이름이 낳지만, 가람을 둘러싼 자연 풍경만큼 최고의 위치라 할 수 있

다. 신원사는 651년 알반종의 개조인 고구려 보덕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고찰이지만,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대웅전 동쪽 50m쯤 떨어져 있는 중약단 영역이다.

중약단은 계룡산의 산신을 모신 묘단으로서 원래 불교의 시설은 아니었다. 1394년 태조 이성계가 계룡산으로 참전하여 산신을 제사지내다가, 성리학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던 효종(1615

1394년 이성계가 창건 독립된 왕실건물 상징 儒·佛·民·官 건축이 응축

년) 때, 미신 타파의 일환으로 철거되었다. 1876년 불교의 외호자였던 명성황후 민비의 후원으로 다시 재건되면서, 중약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울러 묘향산에는 상악단을, 지리산에는 하악단을 세웠다고 하지만, 현존하는 것은 중약단 뿐이다.

대웅전 영역은 남향으로 배치된 반면, 중약단 일곽은 남서향으로 자리 잡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웅전은 뒷산인 연현봉과 축을 일치시키고 있지만, 중약단은 더 멀리 있는 계룡주봉을 기준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이곳이 산신당으로는 최고의 위치이며, 비록 신원사에서 관리

는 하되, 독립된 왕실의 건축임을 상징하듯, 독자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중약단 일곽은 긴 사각형으로 당상을 두르고 대문채와 중문채를 지나 본전이 우측 서있다. 전체 영역을 구성한 형식은 유교의 사당형식이고, 대문채와 중문채를 구성한 수법은 대가집의 주역형식, 그리고 본전 건물은 불교법당 형식이며, 본전의 지붕은 궁궐건물 같이 장식되어 있다. 최고의 민간신앙의 전당답게, 유불민관(儒佛民官)의 건축형식이 총망라된 독특한 건축물이다.

대문은 대가집에 있음직한 소솔대문 형식이고, 양쪽에는 부엌과 온돌방이 있어서 열랑채와 유사하다. 대문을 들어서면 중문채가 나타나는데, 그 사이의 조그마한 마당에는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어 아늑한 공간을 마련한다. 3칸의 중문에는 사헌왕상이 그려져 있어, 민간신앙이 불교화된 표징을 나타낸다. 그런데, 사천왕상 그림이 조정의 무신들과 같이 그려져 있어서, 이 건물이 왕실에 직속된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대문 옆에도 '왕실 직속관리와 높은 스님 외에는 모두 열문을 이용하고'라고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왕가 건축의 위엄을 높였다. 본전 마당 중앙에는 돌로 포장된 좁고 긴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고위 관료나 고승만이 통행할 수 있는 신도(神道)이다. 건물은 매우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고, 정숙하고 신성한 분위기로 충만해 있다.

역사상 최고의 여걸인 명성황후는 다스려가는 조선왕조의 운명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였다. 재국주의 열강들이 한반도를 뚫러가고 각축을 벌이는 와중에서, 그녀는 특히 고유의 산신들에게 의탁해 외세를 물리치려는 정성을 보였다. 이를 두고 명성황후를 마치 무당의 대장군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이들의 잘못이다. 신원사 중약단은 건축적 개성도 뛰어나지만, 이 나라 왕비의 애절한 열원이 스며있는 기념물이기도 하다.

# “지구를 정토로” 참여불교 뜬다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일상의 삶과 수행이 별개의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불자들의 수행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복신앙이 여전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봉사과 사회적 회향이란 전통에서 적지 않게 이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많은 불교단체에서는 수행·봉사·회향의 ‘참여불교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의 구별도, 출·재가의 구별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삶과 수행, 사회적 회향을 통일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최근

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봉사와 회향의 삶을 살아가는 불자의 모습을 개발하기 위해 나선 것도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불교NGO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가연대는 △일상 수행 프로그램 개발 △자원활동가와 사회봉사자 육성을 통한 수행혁신운동 △한국의 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향 설정 △교단혁신을 활동과제로 삼고 있는 국내 및 국제 종교NGO와의 연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정토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한국적 불교사회운동의 활성화와 재가연대의 ‘참여불교운동’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국제적인 참여불교운동을 소개한다.



## ■참여불교도국제연대

참여불교도국제연대(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는 1989년 2월 태국에서 태국의 율학사바라사사와 일본의 테루오 마루야마 주도로 11개국 26개 단체의 출·재가 불자들이 모여 시작되어, 현재 33개국에서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이 모임의 목표는 참여불교의 비전을 개발하고 불교도간 또는 종교인들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불교 또는 사회단체들의 정보제공과 INEB가 관계하는 지역에서 위크업과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대안교육·비폭력운동·인권·환경·여성·대안적 사회발전 및 인간의 심성과 행동등 증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활동은 △Think Sangha(승가의 두뇌집단)를 통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사항 개발작업 △미얀마 민명자 그룹에 대한 지원 △삼보디아 불자들을 위한 ‘마하 고사나다와 함께 하는 평화와 회향’을 위한 협력사업 △호스피스 프로그램 개발 △동남아시아 민중들의 지도력과 신심 개발, 문화적 보존을 위한 세미나 진행 등이다.

##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Sarvodaya Shramadana Movement, SSM)에서 ‘사르보다야’는 ‘모든 사람의 개발을’, ‘슈라마다나’는 ‘노동의 나눔’을 의미, 1958년 알기마계 부도로 아리아라트네 박사가 이끄는 스리랑카 나란다 대학 학생들이 미개발 마을에서 시작한 사회적 교육작업(농촌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아리아라트네는 도시출신 중산층 학생생애가 가난한 마을에서 타인들에게 봉사하는 경험을 갖도록 도왔다. 1958년과 1966년 사이에 3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농촌활동을 통해

## 한국재가연대

## 한국적 참여불교 모델 개발

## 참여불교도국제연대

## 400여단체 인권·환경·여성운동

## 美 사회참여불교연맹

## 사회·정치·생태문제 관심



○1989년 2월 태국에서 열린 참여불교도국제연대 창립회의 참석자들.

대안적 개발을 촉진하는 비정부기구로 발전, 스리랑카 전역의 1만300개 마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아리아라트네 박사는 지금까지 SSM이 이룩한 주거, 농사, 의료시설 등의 일적 성장은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지도력 고안, 여성들의 자아실현,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 교육, 지역사회의 유대 등 질적인 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사회참여불교도연맹

사회참여불교도연맹(Buddhist Alliance for Social Engagement, BAE)은 불교평화주의회(Buddhist Peace Fellowship, BPF)의 혁신적인 불교수정 프로그램으로서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레리에서 시작되어 그 기반을 보스턴, 북캘리포니아 등의 지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1979년 설립된 BPF는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류의 사회·정치·생태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온 단체.

불교 수행과 사회참여가 상호 결합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모델을 탐구하는 BAE 프로그램은 사회참여를 위한 행동강령 지원, 불교수행, 교육생간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활동은 현대사회의 흐름과 참여불교의 근원에 대한 연구사업, 불교사상 연구와 수행, 일상생활에 불교수행

운동, 참가자들의 그룹활동(격주모임, 명상수행, 주말 산악수행) 등이다.

## ■사원공동체(United Buddhist Church)

릭한스님은 1980년 미국 유타를 마치고 돌아와 역학적인 버트날 대영 장관의 퇴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전영 의상자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활동을 시작했다. 84년 대학교수, 학생들과 함께 ‘사회봉사를 위한 청년학교’를 조직해 시골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급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재건하는 운동을 벌였다. 1000여명의 스님과 사회운동가가 동참했다.

1989년 버트날 정부에 의해 추방된 릭한스님은 프랑스에 사원공동체(United Buddhist Church)를 설립, 버트날전정 와중에 평화와 회향을 위한 운동과 장려활동을 펼쳤다. 이후 서양 유명의 전방적인 천박함을 비판하며 부처님의 사상에 근거한 격어있는 삶을 위한 공동체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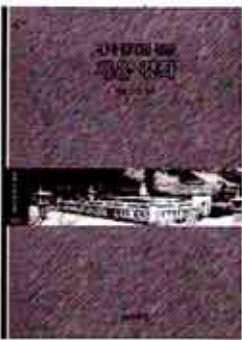
매년 전세계에서 수천명이 수행생활을 체험하는 UBC는 최근의 급속한 성장으로 7개의 작은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94년 이후에는 단종나무 숲 사원을 세우는 등 미국에서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릭한스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70여개에 이른다. [ijkim@buddhapa.com](mailto:ijkim@buddhapa.com)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 여서야

여서야는 '여'자로는 '물'과 '수'가 어우러져 '수'로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되어 '수'와 '수'를 만들어냅니다. 주수 30호로 전체 110호 전체 (021)7-006 팩스 (021)7-006

#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해운 스님 역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오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제(三歸依戒) - 사물귀정경, 염상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제(八關戒) - 지자경, 불살무비타사경, 불살관자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량경, 가미나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다없는 행복, 파멸, 친한 사람, 대부호 마나있다, 호자, 사랑스런 이, 교계살갈라경, 육아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열주, 마음의 후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유정합회

#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